

캔버스에 흐르는 '기후위기 고민'

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
'기후정의와 모두의 예술전'
30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타들어가는 더위, 쏟아지는 집중호우...
매 여름 우리는 겪어본 적 없는 재해를 마주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기후위기를 실감케 한다. 또한 기후위기는 곧 '사회적 불평등'과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벅찬 책임을 지운다. 세대 간 불평등, 국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기후 난민의 비극을 불러온다.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작가들이 대중에게 사회적 대전환의 손길을 내미는 전시를 연다.

(사)민족미술인협회광주지회(이하 광주 민미협)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기후정의와 모두의 예술전'은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후 위기에 앞서 일상 속 생활 양상을 돌아보게 한다.

이달 30일까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브레디관에서 열리는 '기후정의와 모두의 예술전'에는 40명의 작가들이 함께한다. 작가들은 지난 6월 목요일 밤마다 전시를 위해 ZOOM(온라인 미팅 앱)을 통해 기후 생태 전문가들과 한데 모여 기후 위기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다.

광주민미협은 "이번 전시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함께 사회적 전환을 만들자고 대중에게 손을 내미는 '제안의 장'이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대형 작품들이다. 제 1 전시실과 제 2전시실을 차지하고 있는 작품들 중 가로 4m에 달하는 박철우 작가의 '금수강산십단생도'는 무분별한 비닐산업을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지 위에 전통 채색 기법으로 작업하고 작가의 집에서 발생한 각종 폐비닐을 풀라주했다.

전시장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나무 뿌리 형상도 눈길을 끈다. 작품 '사라져야 하는 나무를 위한 애도'는 예술로와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설치했다.

제 1 전시장에 설치된 잘려진 나무 밑둥과 연결된 작품으로, 보이지 않는 근간인 뿌리를 형상화하며 생명을 바라보는 우리 시대의 시선에 대해 물음표를 던진다.

평면회화 작품에서도 사회참여적 전통을 엿볼 수 있다.

우리시대 마지막 간판작가 박대규 작가는 '플라스틱 바다', '폴치', '살고 싶다' 작품을 통해 바다



광주 예술로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라져야 하는 나무를 위한 애도'



박철우 작 '금수강산십단생도'

생태계의 절규를 그려냈다. 노여운 작가는 소비를 유혹하는 예쁜 포장지가 쓰레기가 되는 현실을 '오빠쓰리'를 통해 파스텔 톤으로 표현해 감각과 실제의 반전을 보였다.

518 민중항쟁 당시 소년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김향득 작가는 '아파트 숲에 가려진 무등산' 작품을 선보이며 아파트로 조금씩 가려지고 있는 무등산을 사진에 담았다. 또 김영길 작가는 '현재가 미래다'를 통해 불교의 윤리사상이 '플라스틱을 먹

는' 오늘날의 현실임을 플라스틱 쓰레기 작품으로 보여준다.

전시의 기획을 맡은 김신준 감독은 "기후 위기는 곧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고 눈 앞에 닥친 생존의 문제다. 전시 속 기후 정의 개념을 통해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적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사회적 전환을 만들어 가자는 내용을 담은 전시"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주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나눔장터'

25일 광산구 송정동 원동성당·광산문화예술회관

이주민과 함께하는 제로웨이스트 실천 나눔장터가 오는 25일 오후 1시 광산구 송정동 원동성당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나눔장터는 전주교광주대교구이주사목위

원회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광산구가 족센터 다문화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나눔장터 프로그램은 종이팩, 투명페트병 깨끗하게 모으기 캠페인을 비롯해 광주환경운동

연합의 '분리배출 어렵지 않아요' 체험부스도 펼쳐진다. 물물교환에는 출산맘 육아용품 나눔장터가 진행되며, 워프렌즈 희망의 친구들은 의료지원 부스를 연다.

세계음식부스에는 필리핀 반질, 베트남 반세우, 러시아 리보시카, 동물복지 구운계란, 꼬마김밥 등 다양한 음식이 선을 보인다.

한편 종이팩 5개, 투명페트병 5개 이상 바르게 모아오면 세계음식 쿠폰 1장이 제공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요일의 막내딸 인사드립니다"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녹화
경기 하남편, 관객들로 인산인해
다음달 16일 낮 첫 방송

"일요일의 막내딸 김신영이 사랑받고 있어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가을 문턱에서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지던 지난 17일 낮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운영동 광장. '전국노래자랑' 새 MC로 무대에 오른 김신영이 관객을 향해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관객석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더위에 불이 발강게 익은 아이들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인파를 헤치며 앞으로 나왔고, 의자를 차지하지 못한 어른들은 관객석 옆에 서서 무대를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기 위해 연신 까치발을 들었다.

긴장한 내색 없이 함참 발걸음으로 무대 위에 오른 김신영은 성큼성큼 무대 가운데로 걸어가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전국' 하고 외치면 여러분은 '노래자랑!'으로 사랑을 보내주세요!"라고 외쳤다.

이날 무대에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김선경(22)씨, 한의사 이성민(26)씨, 신입사원으로

회사 동기 사이인 이한영(25), 최세훈(25), 조사무엘(25)씨 등이 차례로 올랐다.

흰색 양복을 입고 등장한 이성민 씨는 "우리 동네 노래자랑에는 사회자가 예쁘다네"라며 가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개사해 불렀고, 신입사원 3명은 김신영에게 축하한다며 자신들이 쓰고 있는 모자를 선물로 건넸다.

김신영은 무대 한쪽에서 호응하며 무대 위 주인공 공을 더욱 빛나게 했다. '땀'을 받은 출연자가 민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풀어내는가 하면, 출연자와 함께 노래 '업타운펍크'에 맞춰 춤을 추며 무대를 달궜다.

김신영의 진행은 무대에 오르기 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털어놓던 격정이 무색할 정도로 매끄러웠다. 출연자, 관객과 소통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뽐내냈다.

고(故) 송해 후임 MC로 '깜짝' 발탁된 김신영이 '전국노래자랑' 무대에 선 건 이날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3일 고향 대구 달서구에서 첫 녹화를 했다. 방송 순서는 녹화 순서와 달리 하남시 편이 다음 달 16일 먼저 방송되며, 대구 편은 23일 방송된다.

김신영은 간담회에서 "송해 선생님께서 '일요일의 남자'였다면 저는 '일요일의 막내딸'이라고 생각해주신데 감사할 것 같다"며 "부족해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진 '명곡 메들리'

오늘 MBN 특집 쇼

레전드 트로트 가수 남진의 명곡 메들리 무대가 펼쳐진다.

MBN은 총 2회로 제작된 특집 음악쇼 '우리들의 남진'을 21일 오후 10시 20분에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두 번째 방송일은 오는 28일이다.

'우리들의 남진'은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블루팀과 핑크팀 두 팀으로 나눠 데뷔 57주년을 맞은 남진의 히트곡으로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가수 정동원, 김희재, 황윤성, 나태주, 신승태 등이 블루팀으로, 홍자, 강혜연, 전유진, 윤태화,



조정민 등이 핑크팀으로 나뉘어 '젊은 초원', '그대여 변치마오', '동지' 등 남진의 명곡을 부른다.

남진도 후배 가수 강혜연과 함께 '단 둘이서' 듀엣 무대를 꾸민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